


# 혁신가의 발표

10802 김영락



롤토체스  
혁신가덱

# 사회현안

우리은행 직원 A씨가 동생과 함께 약 614억원에 달하는 금액 횡령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중 일부로 알려짐  
우리은행은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며 매수자인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 옴.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 최종 패소.  
이에 따라 배상금 730억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그간 대이란 제재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어 지연. 올해 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이란 다야니 일가에 대한 배상금 송금을 위한 특별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고,  
최근 송금 기한이 다가오면서 횡령 사실이 알려짐



# 우리은행

# 당사자의 입장

우리은행

신뢰도에 큰타격을 입어 사태수습에 집중할것

A씨와 동생

2012년~2018년동안 총 3차례 횡령  
600억대 횡령액중 500억은 본인이 투자  
하고 100억은 동생이 투자함

경찰

A씨와 동생이 600억에 드는 돈을 6년동안  
투자하는데에다 썼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아  
사실 부합관련해 자료를 확보할 예정



# 해결 방안

우리은행의 자체적인 조사와 외부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조 필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횡령금 행방 등을 밝혀내야 함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우회인  
송경